

“이탈리아의 슈발블랑”, 프란케티

## 테누타 디 트리노로

Tenuta Di Trinoro



|         |   |          |        |
|---------|---|----------|--------|
| 지역      | 이탈리아 > 토스카나   |          |        |
| 포도품종    | 메를로 39%<br>까베르네 프랑 39%<br>까베르네 소비뇽 11%<br>쁘띠 베르도 11%  |          |        |
| 알코올     | 14.5%   | 용량       | 750ml  |
| 등급      | IGT   | 시음 적정 온도 | 15-18℃ |
| 테이스팅 노트 | 블랙 체리, 블랙 베리 등 풍부하고 집중도 있는 과일 풍미에 스파이시한 풍미가 더해져 있다. 풍성하지만 조화로운 와인으로써 단단하고 촉촉한 탄닌과 스파이시한 피니쉬가 인상적이다. 시음 적기는 2019년부터 2033년으로 훌륭한 숙성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토스카나의 프리미엄 컬트 와인이다. |          |        |



### 제품설명



테누타 디 트리노로가 이탈리아의 슈발 블랑이라 불리우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플래그십 아이콘 와인이다. 테누타 디 트리노로의 레이블은 이탈리아의 현대 예술가 안토니 살보 (Anthony Salvo)의 작품으로, 석양을 등지고 있는 프란케티의 자택을 그만의 꿈 같은 스타일의 이미지로 해석하여 그려냈다. 총 25 헥타르의 빈야드에서 재배한 포도를 구획별로 40 차례 이상 나누어 수확한 뒤, 야생 효모만으로 발효 과정을 거쳤다. 8개월간 새 프렌치 배리교 (barrique)에서 숙성시킨 뒤 시멘트 통에서 11개월을 추가 숙성한다. 테누타 디 트리노로는 보르도 블렌딩의 슈퍼 투스칸 와인이라는 하나, 여느 슈퍼 투스칸들처럼 까베르네 소비뇽이나 메를로 베이스가 아닌, 까베르네 프랑의 비율을 대폭 늘림으로써, 전세계의 와인 애호가들이 까베르네 프랑의 진가를 다시 한번 재발견하게끔 하였다. 2014년은 4,200병만이 생산되었고 한국에서는 연간 60병만 만나볼 수 있는 최상의 프리미엄 와인이다.

### 수상내역



2021 빈티지 제임스 서클링 James Suckling 95점  
2021 빈티지 잔시스 로빈슨 Jancis Robinson 17+점  
2021 빈티지 로버트 파커 Robert Parker 96점

※ 와인의 이미지와 빈티지, 블렌딩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와인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온도에서 누워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